

핸드볼부, H1 디비전리그 우승

올해 전 경기 무패 '폭풍 질주'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핸드볼부가 '2026 H1 핸드볼 디비전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핸드볼부는 지난 5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충남대와의 리그 최종전에서 34-31로 승리하며 대회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대학부 A조에 속한 핸드볼부는 1일 조선대를 36-28로 꺾은 데 이어 2일 강원대를 31-23으로 제압했다. 4일 원광대를 상대로 29-27의 접전 끝에 승리했고, 5일 충남대마저 34-31로 꺾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충남대와의 최종전은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전반전을 17-17 동점으로 마친 핸드볼부는 후반 시작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정진욱(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9m 슛 득점으로 기선제압했다. 이어 전반 초반 교체 투입된 권오준(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연속 선방을 기록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

했다. 이후 양 팀이 치열한 득점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김은호(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와 강준원(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연속 득점이 터지며 점수 차는 31-26까지 벌어졌다. 충남대도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다. 권 선수의 결정적인 선방이 이어지며 경기는 34-31 핸드볼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경기에 대해 강 선수는 "선수들 모두가 준비한 전술을 경기장에서 잘 수행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 중 선수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고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결과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신입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신입생 권 선수가 골키퍼로서 10세이브를 기록했고, 라이트윙 김 선수는 10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 선수는 "초반에는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긴장도 많이 됐다"며

"팀원들이 벤치에서 끊임없이 격려해 준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년 강 선수는 "신입생들의 합류 덕분에 팀 내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경쟁 분위기가 활성화됐다"며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세와 에너지가 팀 전체 분위기와 사기 증진에 도움을 줘 더욱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핸드볼부는 지난 3월 열린 제81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도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디비전 리그 우승 역시 전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디비전 리그를 돌아보며 강 선수는 "이번 리그를 준비하며 경기 후반에도 높은 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향상과 수비 조직력 강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며 "다양한 실전 상황을 가정한 전술 훈련과 연습경기를 반복



올해 '전 경기 무패'를 목표로 하는 핸드볼부는 지난 대회에 이어 '2026 H1 디비전리그'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핸드볼부 프런트 제공)

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저학년 선수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지만, 우리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훈련할 수 있었던 점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꿈꾸며

경희기록관 이금하

경희의유산 ⑥ 「건강의 여신상」

6월 12일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6년 '동서신의학병원'으로 문을 열어, 2010년 11월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1991년 4월 건설의 첫 삽을 떴지만, 설립 과정에 수많은 고난에 직면해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1997년 우리나라를 덮친 외환 위기와 그로 인한 IMF 구제금융 상황이었다. 건물 골조 공사만 마친 상태로 수년간 고덕동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던 병원은 2004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후속 공사가 재개됐고, 2006년 6월 마침내 개원의 날을 맞이했다. 경희의료원은 강동병원보다 35년 앞선 1971년 10월 문을 열었다. 두 의료기관은 공통된 목표가 있다. 바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구현

하는 것이다. 그 꿈을 상징하는 것이 의료원 정문 앞 잔디광장에 서 있는 '건강의 여신상'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건강, 위생, 예방'을 상징하는 여신 '히게이아(Hygieia)'를 형상화했는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홀에 있는 분수대 조각상을 제작한 석주(石洲) 윤영자 선생의 작품이다. 히게이아가 '위생(hygiene)'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히게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의 딸이다. 아버지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중심이라면, 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히게이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의료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한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경희 의료가 지향하는 '질병 없는 인류 사회'의 모습이 라면, '건강의 여신상'은 그 꿈을 향한 경희 의료인의 의지와 도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립자 조영식 박사로부터 새로 지을 병원의 조각상 제작을 의뢰받고, 작가가 이미지 구상에 실제 참고한 대상은 정작 히게이아가 아니었다고 한다. 모델이 된 것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조각한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조각상 '사모트라케의 니케'였다. 바람에 날려 다리에 휘감긴 치맛자락이나 섬세한 두 날개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니케 여신상이 연상되기도 한다. 의료원이 개원하기 3년 전인 1968년 완성된 이 조각상은 처음에는 병원 입구에 마련된 경비실 건물 위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잔디광장을 재정비하면서 경비실이 철거되고, 건강의 여신상도 지금의 위치에 이전 설치됐다.



1971년 경희의료원 개원 당시 '건강의 여신상'의 모습. '니케의 여신상'을 모델로 했다.